

통념과 선입견 깨는 러시아의 내면세계 엿보는 계기

리얼리즘과 환상의 세계로 떠나는 러시아 미술관 여행

글_강지혜 도서출판 학교재 편집부



러시아. 한때 공산주의의 맹주로 미국과 함께 세계를 호령하던 대륙의 나라. 지금은 이빨, 손톱 다 뽑히고 와신상담 재기의 칼을 갈고 있지만,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에게 러시아가 그리 친밀한 나라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문호가 개방되고 공개된 러시아의 모습 가운데 부각된 것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모라토리엄 등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빵 하나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알코올과 마약에 찌든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저 나라가 한때 우리의 숨통을 죄던 나라인가 의심케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숨겨지거나 혹은 우리가 미처 모르는 문화의 보고다. 톨스토이와 차이코프스키 같은 대문호와 예술가들의 주옥같은 작품은 물론, <닥터지바고>나 <백야> 같은 영화는 두 말하면 잔소리다. 여러 문화의 교류를 읽을 수 있는 건축물은 이국적이고, 금발을 휘날리는 하얗고 키 큰 사람들은 다리 짧은 몽골리안의 동경을 자아낸다. 또 해가 지지 않는 끝없는 자작나무 숲을 떠올리면 등 뒤로 한기가 훅 지나간다. 이렇듯 러시아의 매력 혹은 로망을 거론하자면 끝이 없다. 그래서 러시아로 향하는 발걸음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그림을 통해 러시아 깊이 읽기, 다양하게 읽기를 권하는 이 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어 아시아이면서 유럽인 나라. 그 이색적인 아름다움의 세계로 들어서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라는 열쇠가 필요하다.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여 왕정을 뒤엎고 혁명 정부를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이 팍팍했음을 말해준다. 황족과 성직자의 사치와 부패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아이들마저 추운 겨울날 일터로 나와야 하는 러시아의 현실이 어땠는지를 그

림 한 장 한 장은 마치 기록하듯 사실적으로 전한다. 이 그림들이 러시아혁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참 러시아다운 이야기다.

사실 나는 각 도시의 예술을 찾아가는 <아트 트래블> 시리즈의 첫 책이 러시아라고 했을 때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그러나 처음 원고를 받고 그림 하나하나를 찬찬히 보면서 저마다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편집자는 책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애정은 가지되 냉정한 시선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흔히 접하는 유럽 미술과는 다른 전율을 느꼈다. 군더더기 없는 선과 차가운 색조로 차분하고 정적으로 보이지만, 리얼리즘과 환상이 적절하게 버무려져 금방이라도 따뜻한 난롯가로 우리를 불러 모을 것 같은 세계. 러시아 미술에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 게다가 어린시절 읽은 동화를 떠올리게 하는 <백조 공주> 앞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 처음 이 그림을 접했을 때부터 표지감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주현 씨의 독자라면 글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배제하고 그림을 통해 러시아의 역사와 종교, 사회와 문화를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러시아 관련 서적이 너무 오래 전에 나온 것이거나 대중적이지 않고, 러시아 관광 안내서는 다른 유럽 국가 안내서에 비해 정보가 빈약한 수준이다. 거기에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고 자부할 순 없지만,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으니 러시아에 더 관심을 기울이리라 전할 수 있어 보람될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지금까지 통념이나 선입견으로 알려지고 자리 잡아 온 러시아의 내면세계에 좀 더 친근하고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리라 믿는다. [강지혜]